

개인신용평가체계 현황 및 최근 이슈

2026년 1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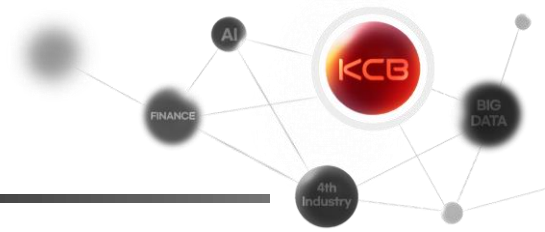


Korea Credit Bureau
The Common Asset of Korea Credit Business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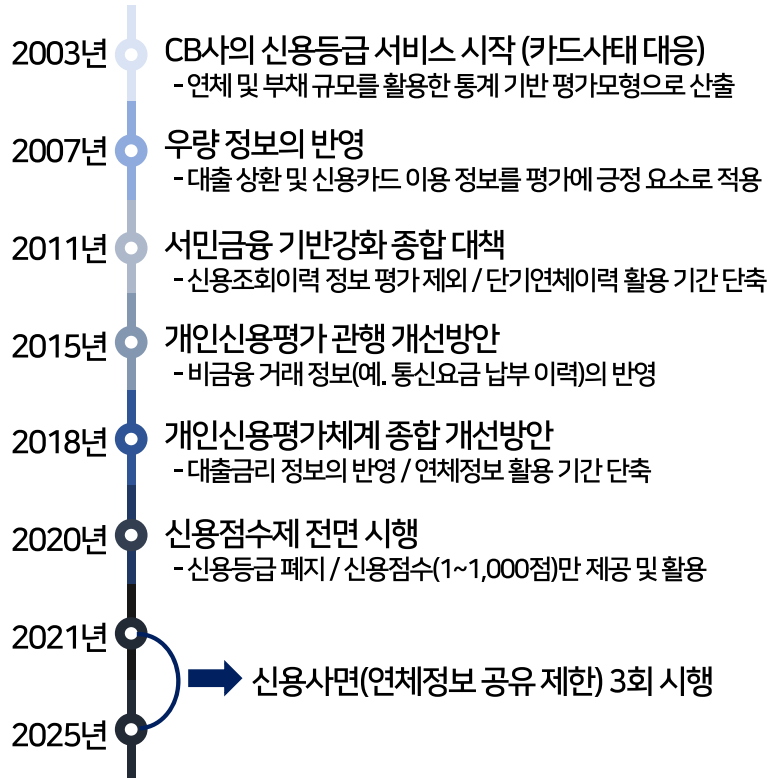
1. 개인신용평가체계 현황
2. 개인신용평가체계 최근 이슈
 - 2-1) 평가 결과: 신용 인플레이션
 - 2-2) 평가 대상: 신용거래정보 부족한 소비자
 - 2-3) 평가 정보: 새로운 정보의 추가





CB사의 신용등급은 2003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신용점수제 전면 시행 이후에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체 및 부채 규모를 판단하는 정보 위주로 모형이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우량 정보와 비금융 거래 정보도 추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5천만 명 이상의 신용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 중 28.6%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KCB 기준)

주요 경과



평가 현황 (KCB, 2025년 검증 기준)

평가대상 수 (전 국민)	5,030만 명
Thin-File (신용거래정보 부족)	1,239만 명 (24.6%)
채무불이행 (3개월 ↑ 미납)	195만 명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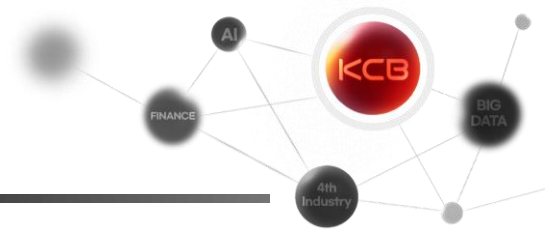
신용점수별 구성비

전 국민	5,030만 명
950 ~ 1,000 점	1,436만 명 (28.6%)
900 ~ 949 점	811만 명 (16.1%)
850 ~ 899 점	383만 명 (7.6%)
800 ~ 849 점	277만 명 (5.5%)
750 ~ 799 점	514만 명 (10.2%)
700 ~ 749 점	826만 명 (16.4%)
600 ~ 699 점	482만 명 (9.6%)
300 ~ 599 점	104만 명 (2.1%)
1 ~ 299 점	196만 명 (3.9%)

평가영역별 반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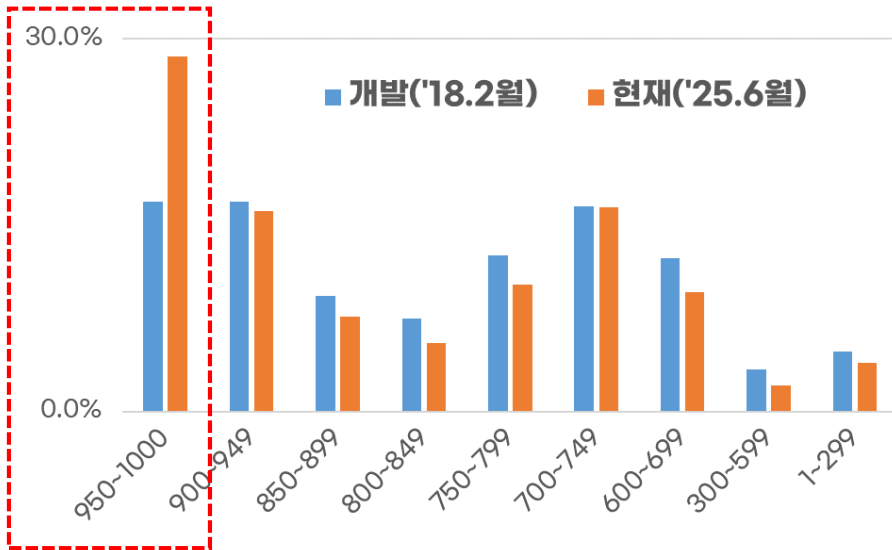


평가 결과 이슈 : 신용 인플레이션



950점 이상의 고-신용자가 개발 시점에는 전 국민 대비 16.9%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현재 10%p 이상 증가하여 28.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신용점수별 균형감 있는 구성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체계로의 업그레이드(평가모형의 재개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금융회사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 점수 구성비 증가



구간	현재('25.6월)	개발('18.2월)	증감
950~1000점	28.6%	16.9%	+ 11.7%p

주요 상승 원인

- 거시적 금융환경 변화 예)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증가
- 비금융 가점 대상자 증가 : 비대면 대출 플랫폼을 통한 마이데이터 등록 증가
- 금융정책 반영 예) 연체정보 공유 제한

대응 방안

1 현재 평가체계 유지 & 평가기준 조정

- 비금융 가점 기준 변경 등으로 상위 점수로 상승하는 비중 하락 유도 예) 가점 대상자 축소, 가점 크기(배점) 감소
- 이에 따른 소비자 다수의 신용점수 하락은 불가피 & 민원 발생
- 금융소비자에 대한 온전한 설득 없이 추진하기 쉽지 않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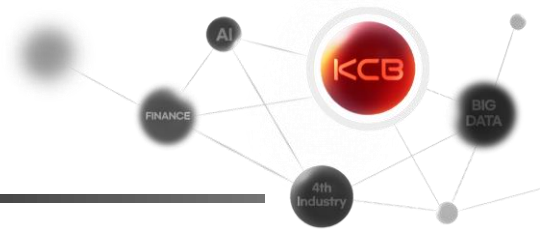
2 평가모형 재개발 & 평가체계 업그레이드

- 현 평가모형은 2018년 2월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신용점수제 시행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금융시장에서 전면 활용)
- 이에 최신 시점의 데이터로 평가모형을 재개발 후, 현재 평가체계 대체 (모형 개발 ~ 시장 도입까지 약 2년 소요 예상)

재개발 시, 주요 검토사항

구분	현재 모형	재개발 모형
방법론	로지스틱 회귀분석	최신 방법론 적용 가능? 단, 평가결과 설명력 필수
데이터	비금융/마이데이터 10% ↓	비중 제고 가능? 추가 가능 데이터 존재?
평가결과	1~1,000점	기존과 다른 범위? 미국 FICO는 300~8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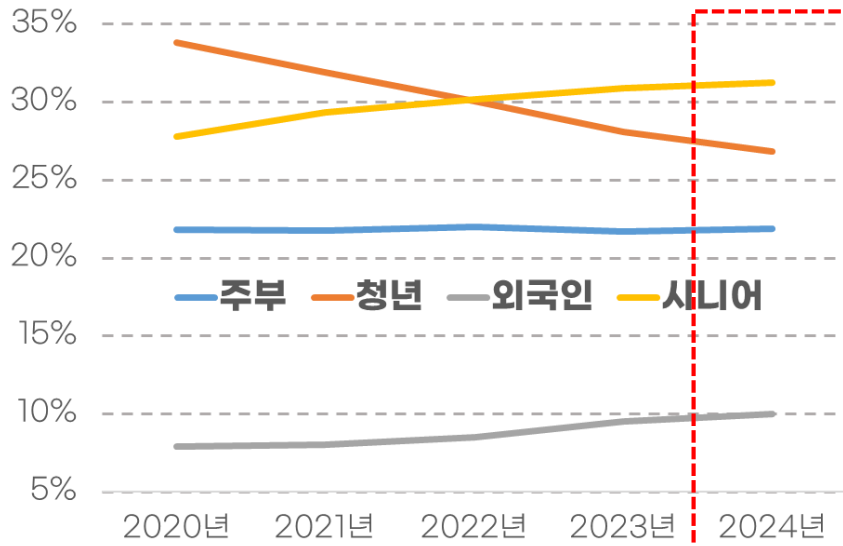
평가대상 이슈 : 신용거래정보 부족한 소비자



Thin-File은, 2024년말 기준으로, 시니어(31.3%) > 청년(26.8%) > 주부(21.9%) > 외국인(10.0%)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신용거래를 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다른 정보들을 활용하여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집단(예. 외국인)에 국한된 부가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지속적인 성능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Thin-File 현황

GROUP별 구성비(연말 기준)



Thin-File 1,236만명 (2024년말)

GROUP	주부	청년	외국인	시니어
대상수	271만 명	331만 명	123만 명	387만 명
구성비	21.9%	26.8%	10.0%	31.3%

주부 : 여성 & 직업 무 & 30~60세; 청년 : 18~34세; 시니어 : 61세~
외국인 : 주민번호 외 식별 & 1년 내 체크카드 발급(허수 제외)

평가 이슈

- 1 평가활용 정보 부족으로 상위 신용점수 획득 불가
 - 3년 이내 신용카드 또는 대출 거래를 하지 않음
→ 상위 점수 산출에 필요한 신용거래 후 상환 실적이 전혀 없음
 - 오래된 신용거래, 체크카드 및 본인등록정보(비금융/마이데이터) 등에 근거하여, 중위 수준의 신용점수(650~800점)를 부여 받고 있음

Thin-File의 평균 신용점수(2024년말 기준)

주부	청년	외국인	시니어
704점	734점	722점	697점

- 2 동일인 정보 이력의 단절(국내체류 외국인)
 - 동일인에게 복수의 식별번호가 존재하여, 정보 이력이 연결되지 않음
(식별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평가 보완 외국인대상 별도 부가서비스를 개발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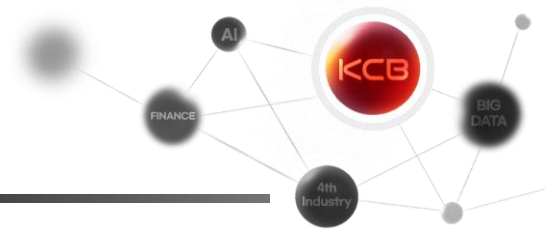
외국인스코어 1.0 출시
(기준시점 : '17~'18)

'24.6

외국인스코어 2.0 출시
(기준시점 : '22)

- 최근 체류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개발을 지속 검토하고 있음
- 하지만 신용정보 이력의 단절, 분석할 수 있는 거래 정보 부족 등으로 체류자에 대한 평가 성능 제고에 한계가 있음

평가 정보 이슈 : 새로운 정보의 추가



현재 비금융/마이데이터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신용 여력과 성실 상환 및 신용 성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기존 신용거래정보 대비 정보 커버리지와 활용 효과에 한계가 있어, 신용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정보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들의 발굴이 필요하나, 후보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의 확보 및 분석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활용 비금융/마이데이터

1. 신용 여력을 평가하는 정보들

구분	정보 원천
등록연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자산	수신 (금융 마이데이터) 유가증권 (금융 마이데이터) 연금 (금융 마이데이터)

2. 성실 상환을 평가하는 정보들

구분	정보 원천
통신요금	통신사 매월 납부여부 (금융 마이데이터)
건강보험	건강보험 매월 납부여부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연금	국민연금 매월 납부여부 (공공 마이데이터)
공공요금	수도/전기/가스 매월 납부여부 (CB사 직접 수집)
보험료	각종 보험료 매월 납부여부 (금융 마이데이터)

3. 신용 성향을 평가하는 정보들

구분	정보 원천
신용 관련 설문	설문 응답 내용 (KCB 직접 수집)

활용 이슈

	대출 및 카드 정보 (상환이력/부채수준/거래기간 등)	비금융/마이데이터 정보 (신용여력/성실상환/신용성향)
CB사 커버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카드 거래정보 모두 보유 (거래 시, 정보제공 필수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거래 중 일부만 보유 (금융소비자가 본인 정보 등록) 소비자가 정보 삭제 가능
정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사 수집 정보로 수시 가능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용 데이터 별도 확보 필요 (데이터 가명결합 처리 필수) 일회성 분석만 가능
정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량 정보는 모형 성능의 핵심 (예. 연체 일수, 연체 금액) 다양한 항목을 추가 개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 요소(가점)로만 활용 중 (부정 영향으로는 활용 제한) 새로운 항목의 발굴은 어려움
활용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형 변별력 높이는 주요 요소 배점 구성비의 안정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별력 제고에 큰 효과 없음 (부정 요소 없어, 긍정 영향력 감소) 등록 증감에 따른 구성비 변동 발생 (신용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

기존 신용거래정보의 활용 효과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추가 정보의 발굴이 쉽지 않음
(대부분 기관에서, 부정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원하지 않음)